

차례

公州의 어제와 오늘 2

웅진칼럼 _ 3

沈大平과 충청인이 役割 _ 안영진

특별기고 _ 5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⑤ / 백원철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 _ 8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의회를 찾아서② _ 10

- 이범현 공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김선태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특집 _ 14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⑤ / 장길수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_ 18

댄스스포츠/서예/풍물

우리 고장의 옛 자취를 찾아서 _ 24

- 향토사료 - 공주의 학교 정담(靑談)② / 이일주

-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 정안면 운궁리

공주의 인물 _ 35

김종서 장군

내고장 소식 _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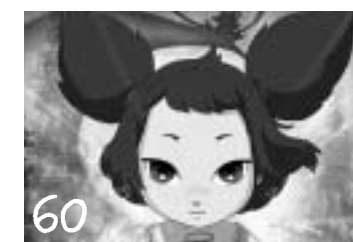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미담

예술의 향기 _ 54

문화원 소식 _ 60



公州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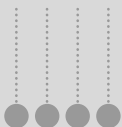


1950년(추정) 공주지방법원의 봄 | 1910년 5월 9일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으로 인하여 1심으로 5년형의 선고를 받았던 곳이다.



지금의 공주지방법원 벚꽃나무는 대부분이 베어지고 건물은 신축되어 있다.





安榮眞 —

대전일보 편집국장, 주필
중도일보 편집국장, 주필
전국지방지 편집국장협의회회장
예총 충남도 회장
문인협회 충남도 회장
국제PEN클럽 대전광역시 회장
평화통일정책자문위
(중앙상임위원)

沈大平和 ‘충청인의 役割’

정치판이 철을 맞은 듯 술렁대고 있다. 4년 전 100년 초석을 다진다며 큰소리치던 ‘열린우리당’이 공중분해를 할 것 같아 안타깝다. 탈당파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반 한나라당’ 연합전선 운운하지만 ‘탈당의 변’을 듣다보면 정말 화가 치민다. 한자리 수 지지율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판 살림을 차리겠다는...

야당 할 각오를 하고 고개를 떨구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꼴인가. 어느새 권력 맛에 취했는지. 그 누구도 야당 할 생각은 없고 ‘창조적 분열에 의한 정권재창출’을 떠들고 있으니 정말 염치없는 군상들이 아닌가. 반면 한나라당 집안사정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경선승리가 곧 등극(登極)이라 판단, 1, 2위(여론조사) 간에 격투를 벌인다.

이명박 측이 ‘애를 낳아보지 않은 여인은 모성애와 산고(産苦)를 모른다.’고 비아냥대자 박근혜 쪽에선 ‘군대를 안간 사람이 군통수권을 행세할 수 있는가.’라고 응수한다. 거기에 한 수를 더 떠 ‘검증’소리를 연발, 마치 비밀병기라도 지닌 듯 <한방이면!>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당내에선 두 후보가 충돌할 때 당의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행정수도 불가론’을 그토록 물고 늘어지던 인사가 충청권에 비둘기 손짓을 하고 있다. 대권주자의 언행이 이래도 되는가를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지난 연초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때 ‘엄청도의 새 지평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명청도’ 아닌 ‘엄청도’를 합창하며 이완구 지사는 ‘강한 충남’을 외쳤다는 것이다. 우리 충청인은 타 지방으로부터 줄곧 악의에 찬 별명을 들어왔다. 예를 들면 ‘명청도’, ‘햇바지’, ‘제2중대’, ‘느림보’, ‘박수부대’, ‘대타자(代打者)’ 심한 경우 ‘무정란(無精卵)’이라고 야유했다. 이는 청색과 황색 두 진영에서 지어낸 별명이다.

충청인이 왜 ‘햇바지’이며 ‘무정란’이란 말인가? 패거리 정치가 판을 치고 광란을 쳐도 균형을 깨지 않고 늘 견제를 해 온 충청인이었다. 부산, 대구에서 녹색바람이 북상을 하고 목포 광주의 황색 사풍(砂風) 앞에 치우치지 않았던 충청권은 ‘로터리’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그것은 ‘중용(中庸)’이며 ‘노맨스랜드(Nomansland)’인 동시에 횡격막(橫膈膜)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영호남에선 95%선의 몰표를 던져 지방색을 드러냈지만 충청권은 이고장 출신 윤보선과 김종필이 대권 출마 때도 70%를 넘긴 일이 없는 냉철한 고장이다. 하지만 딱 한 번, 지난번 지방선거 때 흥분한 나머지 대전시민이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모두를 한나라당에 몰아주었다. 이는 여당의 무능에 화풀이를 한 결과였다.

대의정치에선 싹쓸이와 독점, 완승(完勝)이란 사전(辭典)에도 없는 어휘다. 해묵은 이야기 한 토막을 곁들이자.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과 우리 군사정권 때 모 실세가 나누는 대화가 그것이다. 이쪽에서 “국민의 95%는 고분고분 잘 따르는데 나머지 5%가 골칫거리”라고 하자 <95%의 내 패도 소중하지만 말 안 듣는 5%를 위해 정치는 존재하는 것>이라 이광요는 답했다.

깊이 새겨들을 대화다.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충청권역할론’이 고개를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지난날 ‘자민련’식 돌풍에 향수를 느낄 필요는 없다. 지난번 4·25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좌초하고 무소속이 대약진, 민의의 향배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대전 ‘서구을’에선 예상을 깨고 국민중심당 심대평이 압승을 거뒀다.

3선 고지를 넘보던 이재선은 무릎을 꿇었고 심대평이 개인의 인품과 ‘행정달인’으로서의 바른 평가를 받은 셈이다. 바꿔 말하면 벌써 오만해진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충청인의 표심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보아 지나칠 게 없다. 공룡처럼 비만해진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가 상주하며 전력투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심대평이 큰 별로 부상을 한 셈이다.

요즘 심대평과 국민중심당은 여세를 몰아 대선가도를 달굴 눈치다. 심대평이 단기(單騎)로 한나라당을 물리쳤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앞날이 마냥 순탄한 건만은 아니다. 변수가 돌출할 공산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대선 때 90%선의 충청권 지지를 확신한다고 심대평 캠프에선 장담하고 있는듯하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뿐 이를 확신할 사람은 없다.

푸대접에 시달려온 충청인들은 이 고장을 어떻게 대변하고 쟁겨줄 인재를 갈망해 온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옛날 JP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 요즘 정치판도는 다당제 쪽으로 가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대통령 중심제에선 양당제가 바람직하고 다당제는 ‘내각제’ 하에서만 빛을 본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캐스팅보트(Casting vote)…. 그것은 절묘한 전략 같지만 약자의 생존수단이라는 데 한 가닥 ‘애잔’함을 느낀다. 심대평, 떠오르는 샛별이긴 하나, 당을 추스르며 대권고지로 가는 길은 그리 평탄치 않을 것이다. 어떻든 이번 보선에서 드러난 충청인의 표심에 부응하는 몸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 두고 싶다.

금강(錦江)에서 님의 보내며

백원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인 허제(許樞, 1563~1640)공은 광해 4년(1612)에 여러 달을 공주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때 금강과 공산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수의 시를 남겼다. 공은 앞서 선조 30년(1597)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영천군수·형조정랑·군자감정 등의 벼슬을 거쳤으나, 공주에 머물게 된 시기는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때였다. 그 연유는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당시 조정에서 왕의 처족(妻族)인 유희분(柳希奮) 일당의 전횡이 극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허제 공은 이 때의 권력 쟁투에서 밀려났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마침 같은 당파(大北)에 속한 이경전(李慶全, 1567~1644)이 충청관찰사를 맡아 공주에 있었으므로, 잠시 수개월을 의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공의 시는 대체로 이별이 중심제재가 되고 그에 따라 애상어린 정조가 시의 바탕에 흐르게 된 듯하다.

벗을 보내며

예로부터 금강은 이별의 슬픈 마음 머금게 하노니
하물며 가을 깊어 낙엽 떨어지는 때이라!
나그네 무리된 신세로서 도리어 벗을 보내노라니
슬픈 노래 한 가락에 눈물만 줄줄 흐른다네.

錦江自古傷心地 況夫秋天搖落時
去向客中還送客 悲歌一曲淚如絲
(氷色集, 卷2, 二十二, 「送人」)

금강을 읊는 여타 문인들은 대체로 금강의 비단결 같은 푸른 물결과 강 주변의 승경(勝景)을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은이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시구 속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작자 자신이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리라. 또한 당시 지은이는 관직을 그만둔 상태였던 만큼, 아마도 실의에 젖어 있던 시기였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금강에서

서풍은 비를 몰아 갈게 뺀은 나루 지나가고
성곽은 쓸쓸한데 풀 나무만 싱그럽구나
버드나무 늘어진 강머리에 봄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는 정말 그리운 님 다시 볼 수 없으려나

西風吹雨過長津 城郭荒涼草樹新
楊柳江頭春已盡 如今不見斷腸人
(氷色集, 卷2, 二十三, 「錦江」)

조정이 있는 경사(京師)를 멀리 떠나
객이 되어 있는 처지인데, 무정하게 세



월은 흘러 벌써 봄도 다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은 없는
상태, 이러다가 정녕 아주 그리운 님은
만나볼 수 없게 될 것인가! 애타는 심정
을 토로하고 있는 바, 아마도 '애타게 그
리워하는 사람(斷腸人)'은 임금을 지칭한
듯 하다. 곧, 다시 조정에 나가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공북루에서

금강가 성 위에 우뚝 선 공북루
고향 바라보며 난간에 기대섰네
서풍 부는 저물녘 흰 물결 일렁이는데
단풍잎 갈대꽃 속에 떠나는 배 전송하네

錦江城上拱北樓 望鄉人倚曲欄頭
西風日夕白波起 楓葉蘆花送去舟

(水色集, 卷2, 二十三, 「次拱北樓韻」)

고향을 떠나 멀리 공주에 머물고 있는
지은이는 봄철을 다 보내고 어느덧 가을
을 맞았다. 그런데도 아직껏 돌아가지
못하고, 다만 공북루에 올라 망향의 심
사를 달래고 있을 뿐이다. 이때 해 저물
녘 일어나는 금강의 흰 물결과 길손을
싣고 배 떠나는 나루터의 정경은, 작자
의 마음에 더욱 스산한 모습으로 보여
졌을 법하다.

늦게 공북루에 올라 사또에게

높다랗게 우뚝 선 누대 석양빛에 의연한데
굽어보는 장강의 물결 도도히 흐르네

역사 깊은 강토, 바람 안개 삼백리를 이었
는데

흥성한 왕국의 문물을 몇 해나 누렸더니
사또는 이 고장의 어른이라 두텁게 백성 돌
보지만

떠도는몸은 세상 끝에서 깊은 시름 위로할뿐
아득한 모래벌에 날던 새는 자취 없는데
돌아가는 사람들 다투어 건너려 나루터에
웅성이네

崕嶠獨上夕陽樓 俯視長江湛湛流
故國風烟三百里 興王文物幾千秋
使君地主傾深眷 遊子天邊慰遠愁
漠漠沙汀飛鳥盡 歸人爭渡滿津頭

(水色集, 卷2, 二十四,
「晚登拱北樓次前韻呈呂使君」)

해 저물녘 공북루에 오른 지은이는, 저
녁노을 속에 우뚝 선 공북루와 장엄한
산성, 그리고 도도한 물결로 흐르는 장
강을 굽어보며 잠시 회상에 잠겼다. 천
년 전 나라를 열었던 역사 깊은 이 고장
의 옛 강토는 수백리에 달했고 흥성했던
백제 왕국의 문물은 오랜 세월 이어갔었
음을 상고해 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자신은 한낱 떠도는 신세임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돌아갈 곳 있어 서둘
러 강을 건너려 다투는 사람들로 북적대
는 나루터의 정경은, 지은이에게 더욱
처연한 심정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 시에서의 사군(使君)은 여우길(呂祐
吉) 공주목사를 가리키는데, 이 당시는



앞서 언급한 이경전(李慶全)이 관찰사, 여우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산지(公山誌)를 통하여 이들의 재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임자년(광해 4, 1612)임을 알 수 있다.

관찰사 이경전(1567~1649)은 곧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아들로 문과 급제 후 예조·병조 좌랑을 거쳤으며, 1608년(선조 41) 영창대군의 옹립을 꾀하는 유영경(柳永慶)을 정인홍 등과 함께 탄핵하다가 도리어 강계에 유배당했다. 곧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자 풀려났으며, 이 때에는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목사 여우길(1567~?)은 문과 급제 후 평안도 도사·충청도 병마절도사·밀양부사를 역임한 뒤에 이때에 공주목사로 재임하고 있었으며, 6년 뒤(1618, 광해 10)에는 다시 이곳 관찰사를 지냈다.

공주를 떠나며

여러 달 나그네로 떠돌다 이제야 돌아가는데
슬쓸한 성 위 아침 해는 길 떠날 몸을 비추네
올 때는 안개 낀 물가에 푸른 줄풀삭이 났더니
가는 날엔 서리 내린 숲에 단풍잎이 날아 떨어지네

婁月客遊今如歸 荒城初日照征衣
來時烟渚青菰秀 去日霜林赤葉飛

(水色集, 卷2, 二十八, 「發公州」)

그토록 기다리던 때가 되어 이제 상경하게 되었으니, 곧 삭이 나던 봄철에 금

강을 건너 공주에 머물다가 이제 붉게 물든 잎이 날아 떨어지는 늦가을이 되어 서야 돌아가는 몸이 되었다. 고대하던 일이라 기쁜 일이기도 하나 그래도 이별의 아쉬움도 있는 법,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이별에 부쳐서

즐겁게 지낸 깊은 정 이별을 어찌하나
가을 강에 해 저무는데 차마 떠나지 못하네.
광정역 안개 낀 숲 지나 천안에 비내리니
먼 길 가는 나그네 슬픔만이 많아지네.

歡會情深奈別何 秋江落日不堪過
廣程烟樹天安雨 遠客悲懷千倍多
(水色集, 卷2, 二十八, 「次韻贈別」)

이처럼 반년 쯤 공주에 머물던 지은이는 귀경하여 다시 환로에 나아간 듯한데 (이 해 6월에는 유영경등이 형을 받았고, 9월에 정인홍이 우의정에, 이이첨이 예조판서에 각각 임명되어 이른 바 대북(大北)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던 바, 같은 당에 속하는 지은이는 이 때 다시 올라가 등용된 듯 하다) 1628년(인조 6)에는 유효립(柳孝立) 등의 음모를 고변한 공으로 1등 공신이 되어 양릉군(陽陵君)에 봉해졌으며, 이 후 한성 판윤을 지내고 기로소에 들었다. 문장과 시에 능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또한 지은이는 곧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재종형이 된다.



공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찾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고 널리 알려서 독자들에게도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를 찾았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기본이 바로서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활문화운동



최운용 회장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정직한 개인(진실)-함께 하는 사회(질서)-공동체 사회실현(화합)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사회선진 한국도약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孝 사상을 계승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도덕성회복운동,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국민화합운동, 기본이 바로서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활문화운동, 밝고 맑은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부조리 추방운동, 회원 확장과 정예화로 국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특별활동,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바르게 살기운동 (1인1선 운동)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주시협의회는 최운용 회장님을 중심으로 650명의 회원이 동참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든 회원이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민의 다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선정시 외형보다는 진실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내실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동참하도록 솔선수범하며, 향후 사업내용을 평가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차기사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바르게 살기운동의 본질을 강화 실천하고있습니다.

지난 2006 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및 새세대 도의정신 실천 발표 대회, 예절생활 우수실천 발표회, 바르게살기 동아리학생 조직육성을 위한 연찬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도 바르게살기운동의 홍보와 교육을 하였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으로 여성도의교실을 열어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녹색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오물수거 및 제거를 함으로서 많은 위원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위원 수련회를 통하여 바르게살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넓히고 강조하며 실천하는데 노력하고있습니다.

2007년도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여성도의회학교 운영입니다.

21세기 도의사회 건설을 위한 의식과 생활교육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인데, 참여수강대상은 시민모두 및 여성위원들이고, 가정생활이 근본임을 절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절교육실시를 통하여 바르게살기위원들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어려운 이웃및 시설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의지를 갖고 실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수련회를 개최하고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읍면 평가및 교육, 표창을 하므로써 목적을 고취시키고,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충청남도협의회에서 하는 많은 사업에도 참여함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정착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단체-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 협의회를 소개합니다.

글 | 김춘원 명예기자



「공주문화」는 공주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이범헌 공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선태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만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범헌 공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견제와 감시 역할 뿐만 아니라 공주시 발전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시와 시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공주발전의 초석을 세우는데 일조를 할 생각이다.”

이범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31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됐다. 제4대 의원직을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지역을 위해 발로 뛴 의원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강직한 그의 성격 만큼이나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그의 열성에 지역 주민들은 망설임없이 그를 다시 주민 대표로 내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 4월9일 2007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 복지사업과 관련,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육구 파악 및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을 실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추진함에 예산지원액이 145,92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으로 공주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수행하고 생활지도사를 31명을 배치하는 설명회가 있었다.

지역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이범헌 의원은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방

대하게 지원하지 말고 한군데 모아 창구를 일원화하고 市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면서 “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또 예산 외로 들어 갈 것이지만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신중히 처리할 것을 부탁했다.

특히 지난 3월8일 유구건설폐기물건설추진 반대를 위해 1000여명의 유구읍민들과 함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며 앞장섰다. 이날 유구읍민들과 이범헌 의원은 “「맑고 깨끗한 유구천 만들기 사업」이 펼쳐지는 유구천으로 공사현장에서 뿜어 나오는 시멘트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썩은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며 건설사업의 원천봉쇄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장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유구읍민 등 1,300여명이 서명, 계속적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이범헌 의원은 밝혔다.



이범헌 의원은 △유구청년회장 △공주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 △유구라이온스회장 △유구조기축구회장 △유구읍 체육회장 △국제라이온스 855D지구 부총재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역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2회) △유구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유구중학교 총동문회 감사(현)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현)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공주시 교육청 리포터(현) △제4대 공주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 제5대 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에 재직 중이다.

“시·도의원 경력 발휘,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김선태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의원은 제4대 의원과 제4대 충청남도의원을 거쳐 지난해 5.31 선거에서 제5대 공주시의회에 재입성했다. 시·도의원을 두루 거친 그의 경력에서 주민들은 김 의원의 활동을 다시한번 기대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직을 맡으며 공주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다루어 주민들의 믿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김선태 위원장은 “시민들이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의정활동에도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선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과거 권위주의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5도2촌 주말도시육성사업, △제민천 가꾸기, △백제문화제 등 공주시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일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은 2007년 4월 24일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자카드 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쌀종합대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 위원장은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해 활발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주시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시와 의회가 견제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공주시는 탄천산업단지 30만평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유구, 의당, 정안 등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제4대 공주시의회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부장 △공주경찰서 방범 자문위원장 △공주시 게이트볼 협회 회장 △공주청년회의소 회장 △백제라이온스클럽 회장 △공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제세당 한약방 대표(현) △공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현) △공주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으로 활동 중이다.

| 신용희 명예기자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5)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풍수와 땅이름(4)

행주형(行舟形)과 땅이름

행주형(行舟形) 지형이란 풍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가 출발하기 전의 모습이라 한다. 이러한 고을은 사람과 재화가 풍부하게 모이는 곳이라 하여 풍수적으로 좋은 곳으로 여긴다. 대표적인 행주형 도시로는 평양, 청주, 나주, 하회마을, 공주 등을 들 수 있다.

행주형 지형 주변에는 항해에 필요한 키, 돛대, 닻 등의 지형물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지형물이 갖추어져 있어도 좋은 땅으로 여긴다. 이러한 지형물이 없을 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나주, 청주의 석당간으로 이는 돛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동국여지승람 나주목 고적조에 “처음에 주(州)를 설치할 때 나주의 지형이 주형(舟形)인 까닭에 그 안정을 빌기 위하여 동문밖에는 석장(石檣)을 동문 안에는 목장(木檣)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다.

행주형(行舟形)과 공주의 땅이름

행주형 도시인 공주에는 인공적인 지형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주형과 관련된 지형물이 없을 때에는 배와 관련된 땅이름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공주에 주미산(舟尾山), 정지산(艇止山), 사공암(沙工巖) 등 배와 관련 있는 땅이름이 많이 보이는 까닭이다.

▶ 주미산(舟尾山, 금학동~주미동 경계)
주미산(舟尾山, 381m)은 공주 남쪽에 위치하며, 금학동과 주미동 사이에



〈나주시 석당간〉
출처:나주시 페이지(2007)

높이 솟아 있는 산이다. 주미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산이다. 그 모양이 배꼬리 모양으로 생겨서 고물리 또는 주미리(舟尾里, → 주미동)라고 불린다. 지세가 배의 모양으로 생긴데다 강의 반대쪽에 있으므로 배의 끝부분이 되어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산의 이름에서 파생하여 그 아래에 생긴 마을이름도 주미골 또는 주미리(→주미동 : 공주시로 편입된 이후의 명칭)라 부른다.

공주 구시가지(옛 도읍지 지역)의 지세를 살펴보면 남북으로 기다란 작은 분지를 이루고 있다. 구시가지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쪽의 주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봉화대~옥녀봉~공산성, 서쪽에 일락산~봉황산~교촌봉~정지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골짜기이다. 전체적으로는 북부 일부만이 트여 있는 분지 모양으로 그 형상이 마치 배(舟)와 같은 지형이라 한다. 그



〈제민천 하구에서 본 주미산〉

래서 배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제민천이 남쪽의 주미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며 금강과 연결된다. 제민천은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시가지를 동서로 양분하였으며 시가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정지산(艇止山 : 공주시 금성동)

정지산은 금성동에 위치하며 백제큰다리 남쪽 정지 터널이 있는 산이다. 공주의 지세를 배의 형국으로 볼 때 뱃머리 부분으로 배를 멈추어 두는 지점에 해당하므로 배가 머문다는 의미의 산이름을 갖게 되었다.

주미산에서 발원한 제민천(濟民川)물은 정지산 동쪽 끝에 이르러 금강과 합류하고 정지산 북쪽을 휘감아 곧바로 이어지며 서해로 흘러간다.

최근에 정지산 터널 상층 지표에서 백제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백제의 국가적인 제사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한다. 무령왕의 빈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빈전이란 죽은 왕이나 왕비의 관을 발인 때까지 두던 곳이다.

▶ 사공암(沙工岩 : 공주시 주미동)

동국여지승람 공주목 산천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沙工巖 在州南三里俗云州勢行舟故以舟尾艇止沙工名之”



〈정지산과 백제큰다리〉

이는 “사공암 : 주의 남쪽 3리에 있다. 세간에 이르기를 주의 형세가 배를 운행하는 것 같다 하여 주미(舟尾), 정지(艇止), 사공(沙工)이라 부른다”라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공암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 다만 그 언저리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지명총람(1974, 한글학회) 충남편의 공주군 이인면 주미리 조에 사공암의 기록이 보인다. 그 내용은 “사공암 : 주미산 밑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사람같이 서 있어서, 사공이 배를 부리는 형상이라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이나 공산지에 기록된 ‘在州南三里’는 어디 쯤일까? 주(州)는 목(牧)의 관아를 말하며, 당시 공주목의 위치는 지금의 의료원 뒤편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州南三里’는 의료원에서 남쪽으로 3리 쯤 되는 지점이다.

당시의 ‘3리’ 정도의 거리를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의 기록에서 다른

표시물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공주목 관아 기점으로 ‘3리’에 해당하는 위치는 ‘공산성(州北三里)’, ‘남부면 송산소리(州西三里, 지금의 무령왕능 부근)’ 등이 기록되어 있다. ‘5리’ 정도의 거리로는 ‘월성산봉수(州東五里, 지금의 봉화대)’, ‘정지산(州西北五里)’ 등이다. 사공암과 관련있는 ‘주미산은 5리(州南五里), 주미리는 10리(州南十里) 정도의 거리이다. 위의 내용으로 추정하면 사공바위는 주미리와는 관련이 없고 주미산 북쪽과 주내(州內)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사공암이란 ‘지세가 배 모양으로 되어 있으므로 배를 모는 사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땅이름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땅이름 궁합이라 할 수 있다.

▶ 행주형 지형과 샘물(큰샘거리)

행주형 고을은 지형상 배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함부로 우물을 파는 것을 규제해 왔다고 한다. 우물을 파는 것은 곧 배 밑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배 안에 고인 물(샘물)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공주도 행주형 도시로 샘물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래서 큰샘거리(봉황동) 등의 땅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금강의 강물을 지계와 물동이로 길어다 먹기도 했다.(다음 사진 참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금강가에서 물끄는 소년과 빨래하는 소녀〉
출처:공주의 옛 모습, 공주시(1996)

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대동강가에 자리잡은 행주형 도시 평양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행주형의 풍수 논리로 풀이한 학자가 있다. 즉 평양은 풍수적으로 배가 떠가는 모양인 행주형(行舟形) 지형이므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주민들이 우물을 파는 것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평양에서는 샘물이나 강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풍수적 배경에서 봉이 김선달 같은 사기꾼이 제일의 도시 한성이 아닌 평양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 갑사 당간과 중장리, 하대리

당간이란 절에서 기도나 범회 등이 있을 때 당(幢: 부처와 보살의 위엄과 공덕을 나타내는 기)을 걸어 두는 기둥을 말한다. 우리말로로는 짐대라 한다.

갑사 짐대의 이름을 따서 그 주변을 대장골(大橋-)이라 하였는데 이는 갑사에 있는 짐대를 형상화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다. 즉 당간을 돛대로 의미화하여 큰 돛대인 대장(大橋)이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지세를 행주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돛대와 관련된 땅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행주형과 관련된 이 지역의 땅이름으로 배살미, 배머리 바위 등이 있다. 배살미는 계룡면 중장리 삼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지형이 배의 형국으로舟山 또는 舟山里라 불린다. 배머리 바위는 계룡저수지에 수몰되었다고 하며, 계룡면 하대리 1구에는 배의 돛대를 상징하는 선돌이 있다.

원래 이 골짜기에 마을이 열두 곳에 있으므로, 열두 대장이라 하였고, 한자 표기로는 壯, 牆, 橋, 井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석도 각기 달랐다고 한다. 열두 대장을 크게 상대장(→ 상장, 옷장), 중대장(→ 중장), 하대장(→ 하대)으로 구분지었는데, 지금은 중장리(中壯里)와 하대리(下大里)로 나뉘었다.

공주는 행주형(行舟形) 지형으로 풍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가 어디론가 출발하기 전의 모습이라 한다.

공주의 배는 백제의 옛 고향인 북쪽을 향하고 있다. 잃어버린 한성백제의 옛 땅을 그리워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커다란 배가 민생을 구제하기(濟民) 위해 바다로 나아가는 날 공주는 백제의 영광을 재현하지 않을까! 배가 정박하던 그곳에는 새로운 통로인 백제큰다리로 서울까지 연결되지 않았던가?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사교댄스(Social Dance)

댄 스 스 포 츠



댄스스포츠 정의

댄스스포츠의 개념은 무도회에서 추는 춤이라는 의미의 볼룸댄스를 말하며, 오늘날의 댄스스포츠는 사교적 목적보다는 신체단련을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에 더욱 비중을 두어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대학에서의 교양과목과 각급 학교의 특별활동, 문화센터나 사회교육원 등에서의 강좌로 채택되어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댄스스포츠 특성

댄스스포츠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스포츠이며 레크레이션으로 즐길 수 있다.

반면에 점점 숙달이 되어 초보적 수준에서 상급의 수준에 이르게 될수록 체력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파트너와의 조화를 요하는 것이 댄스스포츠의 특징이다.

댄스스포츠의 멋진 신체의 대근육을 활력있게 움직이는 스포츠성, 음악의 리듬과 함께 율동하는 음악성, 파트너와의 호흡을 맞추는 일치성, 스텝 연결과 표현의 창의성, 공간사용의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운 의상과 남녀의 정중한 예절 등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성에 있다. 댄스스포츠는 댄스와 스포츠의 특성과 매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댄스스포츠 효과

사회 문학적 효과 - 댄스스포츠를 통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은 모든 연령층과 모든 사회적인 기반을 지닌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긴장을 이완시키고 사회생활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과 같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음악을 동반한 유연한 운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이상적인 운동이

곧 댄스스포츠이다. 또한 정중한 예의와 사교성을 추구하는 원만한 사회성은 댄스스포츠를 통한 인격완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

운동효과 - 댄스스포츠는 파트너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는 실내 운동으로 주로 전진 후진 워킹, 러닝, 좌우회전 동작으로 이루어져있어 일상생활에서 댄스스포츠를 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다음과 같은 운동 효과를 누릴수 있다.

댄스스포츠의 역사

중세 유럽 프랑스 귀족의 권력이 강해짐에 따라 호화로운 생활과 더불어 궁중무용이 발달하여 '미뉴엣' '가보트' 등이 부각되었고, 이 무용들을 기초로 하여 관람을 목적으로 한 '발레'와 일반 사람들이 함께 출 수 있는 '댄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Dance sport라는 명칭이 생기기 이전에는 Ballroom Dance라고 불렀는데, IDSF(국제 댄스스포츠 연맹)에서 Ballroom Dance를 올림픽 종목화 하기 위한 과정에서 Dance Sport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참고로 Ballroom은 "둥근 왕실 천장 모양"의 의미였으나 현재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방을 뜻한다.

공주문화원 댄스스포츠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수·금 오후 12시 30분 ~ 2시

강의내용 :

강 사 : 한지현(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재학)

-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 취득
- 생활체육지도사 취득
- 기타 9개 선수권대회 수상



※ 공주문화원 댄스스포츠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수·금요일 오후 12시 30분~2시

강 사 : 한 지 현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재학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 취득
-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취득
- 기타 9개 선수권대회 수상



문자의 조형예술

서예

서예의 특징

서예는 점과 선·획(劃)의 태세(太細)·장단(長短), 필압(筆壓)의 강약(強弱)·경중(輕重), 운필의 지속(遲速)과 먹의 농담(濃淡), 문자 상호간의 비례 균형이 혼연 일체가 되어 미묘한 조형미가 이루어진다.

서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글자를 쓰는 것으로써 서예술이 성립된다. 점과 선의 구성과 비례 균형에 따라 공간미(空間美)가 이루어진다. 필순(筆順),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다. 필순에 따른 운필의 강약 등으로 율동미가 전개된다. 자연의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글자라는 추상적인 것을 소재로 한다. 먹은 옛날부터 오채(五彩)를 겸하였다고 하며 검정색이지만 농담(濃淡)·윤갈(潤渴)·선염(渲染)·비백(飛白) 등이 운필에 따라 여러 색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영묘(靈妙)한 결과를 낳는다.

서예의 발달

서예는 고대 중국에서 발달하여 중국문자, 즉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한국·일본·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계승·발달하였다. 서양에서도 캘리그래피(calligraphy)라 하여 문자를 심미적인 대상으로 쓰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오직 문자를 뚜렷하고 아름답게 형성하려는 것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양 여러 나라의 서예에 비하면 그 의의와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서예의 의의

서예는 중국문화권 안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특유의 예술이었으며, 중국에서 서예는 독립된 훌륭한 예술일 뿐만 아니라 문학·회화와 더불어, 또는 그들 예술과 서로 융합하면서 중국문화사상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이것은 한자가 서양의 알파벳과 달리 원래 그림문자에서 발달하였다는 한자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물론 한자는 그림문자 그것은 아니다.

또 한자 가운데는 표음(表音)의 성질을 가진 문자가 많다. 그러나 원래 한자는 그림문자를 대담하게 추상화하면서 그러한 추상화된 기본문자를 여섯 방법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다.

중국 상고 때 한자 형성의 과정에서 고도의 미적 직관과 구성상의 고심(苦心)과 미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각예술로서 심미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문자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면 민족성이 반영되어 각각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서예

한국에서는 조선 세종 때 한글이 제정된 이후 한글 서예가 발달하였으며, 조선 말엽에는 궁체(宮體)라는 서체가 이루어졌다. 궁체는 한자계가 아니므로 한자 필법이 원용(援用)되기는 하나 문자 구조상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발달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서예

일본에서는 '가나'라 하여 한자에서 탈화(脫化)된 문자가 생겼고 또 '변체(變體)가나'라 하여 한자의 초서(草書)를 본떠 독특하게 발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는 전위서도(前衛書道) 또는 묵상(墨象)이라 하여 문자성이 없는 서예를 주장하는 일파가 일어났으나 문자성을 떠나서 서예가 성립한다는 것은 서예 본래의 성질(문자의 書寫)로 보아 긍정할 수 없다.



※ 공주문화원 서예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월·목요일 오후 7시~9시

강의내용 : 한글, 한문, 사군자

강 사 : 이 일 권

- 대한민국 서예 초대작가/대한민국 고시대전 초대작가
-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충남서예대전 초대작가
- 현, 우공서예학원 원장

일하는 틈틈이 즐기던

풍 물



일반적으로 풍물굿이라 하면 쇠, 징, 장고, 북 등의 악기들을 사용하여 판을 구성하고, 춤을 추거나 놀이를 베푸는 총체적 연희형태를 말하는데, 관객과 잘 어우러져 신명나게 놀 수 있는 공동체적 판의 구성이 이루어질 때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풍물굿의 현장용어에는 굿, 매구(매굿), 두레, 풍장, 풍물... 등의 다채로운 명칭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그 기능과 형태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농악이나 사물놀이 같이 새로 만들어진 용어들에 의해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풍물중 굿과 사물놀이

일반적으로 ‘굿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굿의 의미는 원래 ‘모인다’라는 뜻이 있다. 모여서 공동체 내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풀어가며, 공동체적 염원을 집단적으로 기원하여 집단적 신명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미가 와전되어 자칫 무속에서의 신앙적 의식만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사물놀이란 쇠(뿔과리), 징, 장고, 북 등 풍물굿의 가장 기본적인 악기로 편성되어 연주되는 음악을 일컫는다. 그런데 사물놀이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고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창단한 놀이패(現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명칭으로, 대중적인 파급효과와 맞물려 새로운 예술갈래를 지칭하는 말로 변모되었다.

지역별 분류

일반적으로 풍물굿은 크게 중부 이북의 경기·충청지역에서 행해지는 윷다리풍물굿과 중부 이남에서 행해지는 아랫다리풍물굿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랫다리풍물굿은 좀 더 세분할 수 있어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누는데, 풍물가락이 특히 발달한 지역은 전라도이다. 전라도는 서울에서 보는 방향으로 왼쪽의 산간지역을 좌도라 했고 오른쪽의 평야지대를 우도라 했다. 윷다리풍물굿은 상쇠의 기능이 뛰어나며, 아랫다리풍물굿은 장고(전라도)와 소고(경상도)의 기능이 발달하였다.



풍물패의 짜임

풍물패의 인원은 지역이나 연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3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연희자나 구경꾼이 많을수록 곳이 풍성하고 힘이 넘치게 된다. 풍물패는 보통 기수(용당기-영기-농기), 취군(나발-태평소), 앞치배(쇠-징-장고-북-소고), 뒷치배(잡색) 등의 순서로 짜여지며, 잡색의 경우는 치배와 구경꾼 사이를 이어주면서 일정한 대열없이 흥겨운 춤으로 신명을 돋운다.

풍물패의 복색은 흰 평복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의 삼색띠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뒤에 와서 전문풍물패의 등장과 각종 민속경연대회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풍물굿의 구성원리

쇠, 징, 장고, 북 등의 타악기와 태평소가 어우러지면 자지러지고 푸지면서 신명을 이끌어내고, 발과 몸을 저절로 놀리는 충동이 일어난다. 쇠가 ‘자갈자갈’ 하면서 끓으면 징은 묵직하게 ‘징~’ 하며 쇠를 푸지고 축축하게 감싸주고, 거기에 또 가죽 소리가 달라붙어 장고가 ‘콩박콩박’ 하면 북이 ‘쿠웅쿵’ 하며 깊이를 더해준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뒷골이 허전하여 신명이 동하지 않을 정도로 짜임새가 신명조립을 위해 꼭 차계끔 구성되어 있어서 정적인 감상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잘된 풍물판굿을 보면 이 악기들 소리 외에도 그 풍물소리를 보다 신명나게 받쳐주는 소리가 있으니 바로 여러 사람들의 소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을 돋우려고 또는 신명을 못 이겨서 여기저기서 불규칙하게 내던지는 단순한 고함, 추임새, 박수소리, 환호성소리, 거기에 출창 쉬지 않고 몰아대는 거친 숨소리 등의 소리가 규칙적인 흐름의 가락이 되면서 탁월한 풍물굿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공주문화원 풍물 강좌 안내

강좌시간 : 화·목요일 오후 4시:4시(초급)

오후 7시~9시(중급)

강의내용 : 풍물기초, 가락익히기, 사물놀이, 윷다리 등

강 사 : 류 재 열(유일기획 대표, 공주사회복지관 강사)

|향토사료|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 (2)



이 일 주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고,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대학원 졸업
저서 “현대교육의 원리”

통일신라시대

백제가 멸망한 후 660년부터 공주(당시 명칭 : 웅진)에는 웅진도독부가 설치되고 그 후에 웅주군(熊州郡)이라는 명칭을 거쳐 687년(신문왕 7년)에는 웅천주(熊川州)로 승격되는 등 지명이 바뀐다. 그 후에도 지명이 웅주와 웅천주로 한 두 차례 더 바뀌지만 765년(혜공왕 1년) 이후에는 940년 고려 때 공주로 개칭되기 전까지 웅천주로 불리웠다.

통일신라시대의 공주교육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문화전성기였던 웅진시대의 백제 사료(史料)도 부족하였으니 패망 후 사료는 더 더욱 찾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패한 뒤에도 661년부터 몇 년 동안 부흥군이 결성되어 신라에 대항하기도 하지만 결국 백제 왕자 부여 강(扶餘 降)이 웅진주 도독에 봉해지면서 부흥노력도 끝이 나고 668년에는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므로써 676년에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진다.

신라는 패망한 백제지역에 백제의 왕자로 하여금 도독(都督)으로 삼고, 기민(饑民)들에 대한 구휼정책, 효자비 입석, 사찰 조성 및 중수 허용책 등 백제인들에 대한 무마정책을 펼친 흔적도 보인다.

백제가 멸망한 2세기 후인 822년(헌덕왕 14년)에도 공주성

* 이 글은 2002년 공주시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주시지 하권(下卷), pp. 167~255(제5편 제3장 교육)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에서 김현창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공주지역은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신라는 공주지역에 대한 교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의 정서에 맞는 정치교육이 행해졌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백제 패망 후에도 계속적인 사찰 조성과 중건 등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면 웅진시대의 유·불교에 바탕을 둔 교육이 계속 행해졌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시의 교육에 대한 어떤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 추정에 의할 뿐이다.

다만 747년(경덕왕 6년) 안정복의 동서강목에 의하면 각 주에 조교(助教)를 두는 주학(州學)의 성립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주에 한서의(韓恕意)를 조교로 파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통일신라가 각 주에 보낸 조교 파견기록 중 유별나게 웅천주의 예를 든 것(윤여현, 앞의 글)은 당시 공주의 교육수준이 여전히 높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한 예증이라 하겠다.

한편 신라의 조교제도는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 상(上) 국학조(國學條)에 의하면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에서 국학을 설립하기 전이거나 또는 교육과목이나 교육제도의 정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학(漢學)을 교육하는 관직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682년 예부(禮部)에 속하는 국학이 설치되면서 약간명의 박사와 조교 및 2명의 대사(大舍)를 두어 교육을 담당케 한 점으로 보아(충청남도교육위원회, 충남교육사, PP. 76~77) 통일신라 이후 공주의 주학(州學)에 배치하였던 조교도 주로 한학을 강의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당시 주학(州學)의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9년의 수업연한으로 이루어지는 국학의 교과내용이 크게 유학(儒學)과 기술학(技術學)으로 나뉘고, 유학교육은 논어와 효경을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여 박사나 조교 한사람이 ① 예기, 주역, 문선(文選), 논어, 효경이나 ② 상서(尙書), 문선, 논어, 효경이나, ③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모시(毛詩), 논어, 효경의 세 반 중 어느 한 반씩을 담당하여 교육하였고, 기술교육으로는 산학(算學), 의학, 율령(律令), 천문학 등이 행해졌는데 이를 통해 보면 공주의 주학(州學)에서도 교육기간은 불분명하나 이들 교육내용의 일부가 다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

918년 고려 태조로 왕건이 즉위한 후 940년에 웅주를 공주(公州)로 개칭하고 도호부(都護府)를 설치하였다.

983년(성종 2년)에는 공주목(牧)이 설치되었고, 995년에는 12목을 12절도부로 개편하면서 공주의 명칭이 안절군(安節軍)으로 개칭되다가 1012년(현종 2년)에 절도제가 폐지되면서 공주는 지주군사(知州郡事)로 바뀌고 1106년(예종대)에는 충청주도(忠淸州道)로 개편되었다. 그후 1300년(충숙왕대)에는 양광도(楊廣道)로, 1356년(공민왕 5년)에는 충청도(忠淸道)로 개편되었다(공주대학교 박물관 외, 공주의 역사와 문화, PP. 474~475). 공주는 한때 군으로 격하된 적도 있으나 고려 초기와 1341년(충혜왕 2년) 이후 목(牧)으로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공주가 비록 백제 멸망 후 왕도(王都)의 기능은 잃었으나 고려시대에도 충청도의 주요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정치·문화적 기능을 유지했었던 것으로 보아 교육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회에서는 불교와 유교가 함께 중시되었다. 불교는 특히 개인의 수신지교(修身之敎)로서 존중되었으며, 유교는 치국(治國)의 학(學)으로서 존중되었다. 따라서 불교와 유교가 고려의 교육에 함께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고구려의 태학(太學) 이래 발전된 형식교육기관의 형태가 고려에 오면서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고려시대의 학교교육제도를 개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관학(官學)기관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관학으로는 최고학부인 국자감(國子監)과 지방교육기관인 향교(鄕校), 그리고 동서학당(東西學堂)과 5부학당(五部學堂)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자감은 993년(성종 11년)에 창설되었는데 중앙관제의 예부(禮部)에 속하도록 하고 교원조직으로는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6개 단과대학으로서 국자학(國子學), 대학, 사문학(四文學), 율학(律學), 서학(書學), 산학(算學)의 6학(六學)을 두었는데 국자학, 대학, 사문학 등의 수학연한은 9년, 율학, 서학, 산학 등은 6년으로 하였고, 14세~19세의 연령에 달한 자로서 국자학은 문무 3품이상 고관자제, 대학은 5품이상 자제, 사문학은 7품이상 자제들에게 입학자격을 주었으며 기술교육과정인 율학, 서학, 산학에는 문무 8품이상의 자제와 서민의 자제중 특별히 뽑힌 자가 입학하였다.

한편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127년(인종 5년)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향교는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800년동안 중단없이 교육을 계속해온 공교육기관이었다. 지방 선비들을 위해 세운 학교로 중등교육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전국의 주요 지방마다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文廟)와 함께 명륜당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향교는 제사와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향교는 1127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주지역에는 이보다 앞선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962년(광종 13년)에 당시 규모가 공주보다 작았던 청주에 학원(學院)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보면 당시 9주(州) 가운데 하나였던 공주에도 당연히 학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윤여현, 앞의 글, P. 124).

또한 언제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고려시대 향교터가 신평면 동원리의 향교골에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공주문화원, 공주의 전통마을, P. 132).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평면은 삼한시대에 불운국으로 불리워지다가 백제시대에는 벌음지현(伐音支縣)으로 지명이 바뀌고, 고려시대에는 공주가 전국 12개 지역 중 하나인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신평면은 공주목의 속현이 되면서 신평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최윤철, '유구지역의 역사적 고찰과 지명유래', 유구공업고등학교, 관불산 제2집, P. 64).

이와 같이 신평면은 삼한시대 이후 공주서부지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온 점과 고려시대 원골 유적인 삼층석탑이 현존하고 있는 점, 그리고 향교골이라는 지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틀림없이 그 지역에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교육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동서학당은 고려 후기 학교로 1261년(원종 2년)에 수도에 세운 향교수준의 교육기관인데 다만 향교와 다른 점은 문묘가 없다는 것이며, 5부학당은 동서학당을 증치(增置)한 것으로 공양왕 때 정몽주가 수도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학교를 세운 것으로 수도 지역의 학생들을 향교교육 정도로 교육시키던 곳이기 때문에 공주지역과는 관계가 멀다.

또한 동문선(東文選) 65권에 수록된 「공주 동정 영춘정기(公州 東亭 迎春亭記)」에 의하면 1301년(고려 충렬왕 27년)에 민상백(閔祥伯)이 부임하여 상숙(庠塾 : 학교)을 지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노일선, '공주 향교의 기원과 역할', 공주향토문화연구회, 웅진문화 제13집, P. 104), 이 기록만을 가지고는 당시 학교의 성격이나 면모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숙은 그 후 공주에 향교를 건립하기 전까지 향교의 전신으로 고려때 관학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교육기관의 형태로 추정된다.

사학(私學)기관

고려의 사학 기관으로는 12도(十二徒)와 서당을 들 수 있다. 사림대학격인 12도는 1053년(문종 7년)에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칭해졌던 최충(崔冲)이 최초로 설립한 문헌공도(文憲公徒)를 비롯한 12개의 학교(徒)를 일컫는 것으로, 당시 쇠퇴해 지는 관학에 비하여 매우 번창하게 되었는데, 교육정도는 국자감과 거의 비슷하였고 학벌을 형성시키면서 과거급제에 중점을 두어 교육함으로써 과거예비학교의 일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그 창설 연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고구려의 경당(肩堂)에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보고 있는 서당은 지방의 서민계급의 자제를 수용하여 교육하는 민간경영의 교육기관으로 서민교육의 보급과 민중교화에 끼친 공적이 지대하였다. 송나라의 서경(徐兢)이 저

술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마을 거리마다 경관(經館)과 서사(書社:서당)가 두 세 채씩 마주 바라보이며 결혼전의 민간 자제들이 여기에 모여 스승에게 경을 배우고, 좀 더 성장하면 저희들끼리 친구를 가려서 사찰로 가서 공부하고 아래로 어린 아이까지도 선생에게 나아가 배우더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서당이 얼마나 성황을 이루었는가를 알 수 있다(장찬익 외, 한국·서양교육사, PP. 36~39).

인조 12년에 송나라 사신의 서장관(書狀官)이었던 서공의 관찰기는 당시 고려의 수도 모습을 그렸을 것이므로 지방에도 것처럼 서당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당시 12목 중 하나였던 공주지역에는 상당수의 서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또한 고려의 인재등용방식이 과거(科擧)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향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또는 서민들의 자제교육 욕구충족 수단으로 초기 서당이 성립, 발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국가적으로 장려, 육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료(史料)가 없어 당시 공주에 존재하였던 서당의 교육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정안면 윤궁리



윤궁리 단보들

춘향가에서 활원으로

알려진 마을

- 활원마을, 윤궁리의 예와 지금
- 공주특산물 정안밤의 원조 마을
- 학자를 배출한 이름난 서당 문화당
- 소중하게 보관한 옛 문서
- 효자와 열부의 정신이 깃든 곳
- 마을의 유적과 전해오는 이야기
 - 김갑순과 단보들
 - 활원터와 12주막거리
 - 효자와 우물
 - 윤궁리 뒷산의 심정송 묘

춘향가에서

활원으로

알려진 마을

‘근래에 덕망 있는 어른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준경만이 남았는데 역시 늙어 백발이 되었다. 한태흠 공과 박태규 공과 윤구령 공 등이 바야흐로 옛 제도를 보완하여 학문의 공적을 이어가고자 하니, 이 어찌 쇠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융성케 된다는 징조가 아니라? 준경이 나에게 글을 보내 부타가기를, ‘이 당이야말로 기문이 없어서는 안 되니 그대가 맡아주게나.’ 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도암은 승정후 재갑자년(영조20년, 1744) 정월에 위의 기문을 짓게 되었다. 본 기문의 후반부에서 도암은 특히 문화당의 강학내용에 대하여도 당부하는 말을 빼놓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직 과거를 위하여 사장학(詞章學)만을 위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도학군자를 목표로 하여 시서예악(詩書禮樂)의 학문도 힘써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문을 직접 붓으로 써서 판에 새기도록 한 사람은 홍계희(洪啓禧) 관찰사이다. 도암의 문인이기도 한 홍감사가 마침 이곳 충청도백으로 부임하여 직접 문화당에서 강설한 뒤에 글을 써 주고 새겨 걸도록 한 것인데, 때는 경오년(영조26년, 1750) 4월 하순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유서깊은 문화당도, 후인들의 보존 노력이 미치지 못하



호구단재(1834, 순조 34년에 작성된 것)

여 그만 사라지고 말았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해당관청(공주시청)에 보존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할 수 없다는 응답만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방치한 나머지 십수년 전에 무너졌으며 지금은 밭이 되었는데 주춧돌마저 모두 치워져 그 규모마저 가늠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애석하다고 하겠다.

당의 규모는 큰 집 한 채으 크기였으며 동서로 방이 한 칸씩 있고, 가운데는 마루(대청)였는데, 북벽에 3인(공자, 주자, 송우암)의 영정을 봉안하고 문을 만들어 가렸다고 한다. 당 현판과 함께 영정도 모두 망실되고, 유일하게 앞에

소개한 기문현판만이 최능규(崔能圭, 작고) 씨를 거쳐 최용민 씨 댁에 보관되어 있는 형편이다.

소중하게 보관한 옛 문서

이 마을에는 안동 김씨 몇 세대가 거주한다. 김동선 이장(金東先, 64세)에 의하면 5대조(명: 環公)가 이곳 궁원리에 입향하였다 한다. 그 연유는 이 마을 남양 홍씨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데, 당시의 호구단자와 관직 임명서 같은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호구단자는 고궁원리에 거주하는 김부억(41세, 1794년생)에게 발급된 것으로서 그 시기는 갑오년(순조34년, 1834)이다. 친가로서는 부(父), 조(祖), 증조(曾祖)까지 3대를 밝히고 아올러 외조(外祖)까지 기록되어 있다. 처가 쪽으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후기의 호구단자가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어 당시의 사회 제도를 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다음의 옛 문서는 위 호구단자의 호주인 김부억이 순장(巡將)에 임명되어 파견나오게 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다.

본 문서는 행초서로 쓰여졌는 바, 해서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김부억(金富億)이 순장에 임명되었다는 문서



효자 최익향 정려각



효자 최익향 명정 현판



효자 최식(崔湜) 명정 현판

“兵曹爲相考事 道內公州居 嘉善金富億 巡將差下爲有置 上來察任之意 該邑良中知委施行 宜當向事 合行移關 請照恰 施行 修至關者 右關 忠淸道觀察使 咸豐十年九月日”

위 글의 내용은 병조에서 공주에 거주하는 김부억을 순장(조선후기 순청에서 도성 안팎의 야간 순찰에 대한 일을 총괄하던 장수, 문·무관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 임명함)에 임명하여 파견한다 하니, 해당 읍(공주)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공문에 맞게 통지하고 시행하라는 관찰사의 지시공문으로 파악된다. 당사자의 품계가 가선(嘉善)으로 표기되었는바, 이는 종2품(從二品)이며, 나이는 갑오년(1834) 호구단자에서 41세였으니, 순장에 임명된 함풍 10년(1860)에는 67세였음을 알 수 있다.

효자와 열부의 정신이 깃든 곳

운궁리 아랫말에는 효자 정려가 세워져 있다. 정·측면 각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인데, 홍살로 4면이 둘러쳐진 내부에는 효자 최익항의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孝子贈통덕랑호조정랑최익항지려 송조기원후사정축삼월일명선”. 이제 이 정려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유형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어머니가 항상 병에 잘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데 십수 년 동안 한결같이 손수 약을 달였으며 장례 후에는 여막을 지어 거처하며 아침저녁으로 극진히 살피며 슬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효행은 후대에도 이어져 네 아들의 효행도 뛰어났던 바, 이것이 널리 알려지자 조정으로부터 일문오효(一門五孝)의 특명을 받았으니, 곧 1817년(순조17) 최익항에게는 호조종랑의 증직과 함께 효자정려가 내려졌으며, 그 밖에 네 아들에게도 각각 증직과



열녀비 비신이 묻힌 곳(모정 서쪽 바닥)



최근의 중수 표기



열녀비 받침석

급복의 은사가 내려졌다고 한다.

한편 최익항의 정려각 안에는 뒤쪽에 다른 하나의 명정현판이 걸려있는데 이는 최익항의 당숙이 되는 최식(崔湜, 1656~1743)의 것이다. 기록(輿地圖書)에 의하면 최식은 어머니 이씨가 병에 걸렸을 때 여러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자 의관을 정제하고 자시(子時)에 우물물을 길어다 드렸다고 한다. 7년 동안 한결같이 하여 드디어 어머니의 병환이 낫자 동네사람들이 그 우물을 효자정(孝子井)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효행이 알려져 1754년(영조30)에 급복을 받고, 1788년(정조7)에 명정을 받아 정려가 건립되었다.

본래는 별도로 정려각이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땐가 무너졌으며 그때 명정 현판만을 문화당 한켠에 보관하였는데 문화당마저 무너지자 우선 최익항 정려각 안의 뒷면(북쪽) 상부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또 아랫말에는 열녀비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동북쪽 밭에 세워져 있었는데, 어느 땐가 비신과 받침석이 각각 분리되어 마을 길거리에 방치되었다고 한다. 현재 비신은 문화당터 아래에 위치한 모정 건물 앞 바닥 땅밑에 묻혀 있다고 하고(김동선 이장의 전언) 받침석은 마을 동쪽 율타리 밑에 내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열녀비의 인물은 완산 이씨(完山李氏)라고 하는데 읍지 등에는 소개되지 않은 탓에 자세히 알길이 없다. 다만 전주 최씨 구수세보(全州崔氏 九修世譜) 수편(首編) 열녀조에 “崔德觀妻 完山李氏 以烈女旌閭”라는 극히 소략한 기록만을 접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추정에 불가하다.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비신을 발굴하고 바로 세울 그날이 오면 확인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보들(지금은 경지정리가 되어 옛모습이 아니다)

마을 유적과 전해오는 이야기

김갑순과 단보들

운궁리(아랫말)의 동남쪽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지금은 경지정리가 되어 옛 모습을 잃었지만 원래 ‘단보들’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 들이다. 이제 때 정안천이 무너지고 범람하여 자갈밭이 되어 버려졌는데 공주 부자인 김갑순이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개간하였다 한다.

그때 개간지의 면적을 1단보(300평)씩으로 규격화하였기 때문에 ‘단보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노인회장 서용운(徐容雲, 84세) 옹은 10여세 때 공사현장을 목격하였다 하는데, 또 부자로 소문난 김갑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에서 직접 가까이 가 보았다고 한다.

그때 김갑순은 냇가둑에 백포장(흰 천으로 된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앉아서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길 “얼굴이 길어 말 상호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 말인가!”라고 하였다 한다.

활원터와 12주막거리

마을 이름이 예부터 궁원리(활원리)라 하였으니 길손이 묵어가는 원(院)이 있었을 것이며, 또 활터가 있었기에 그렇게 명칭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접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역시 마을 어른들에 의하면, 아랫말로부터 동남쪽으로 수백 보 떨어진 곳(지금은 논밭이 되었다)을 가리키며 12주막거리라 전해온다고 한다. 아마도 궁원과 그 주위에 주막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예로부터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손들이 묵어가는 곳으로서 주막이 12개나 되었다 하니 제법 흥청거리는 주막거리였음을 알 수



활원터와 12주막이 있던 곳(비닐하우스 부근)

있다. 특히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이 이곳에 들렀다가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젖어 기녀들과 어울리다가 노잣돈이 다 털리는 바람에 과거조차 응시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했다고 한다.

효자와 우물

운궁리 아랫말에는 우물 3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2곳이 남아있고 한 곳은 메워졌다. 마을 동쪽의 갯길과 남쪽의 강당샘이 남아 있어 지금도 맑은 물이 계속 솟아 넘쳐흐르고 있으며, 옷샘이라고 부르던 우물은 메워진 것이다.

우물에 이름이 붙여진 내력은 자세히 알길이 없으나 대략 마을의 끝(가)에 있으므로 ‘갯샘’이라 하고, 강당(문화당) 아래에 있으므로 ‘강당샘’이라 부른 것으로 추정되거니와 메워진 ‘옷샘’은 옷오른 사람이 이 우물물을 마



옷샘이 있던 곳(나무밑)

시고 몸에 바르면 낫기에 ‘옷샘’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옷샘이 혹 기록에 나오는 ‘효자정’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지도서(1765)와 충청도



▲심정승 묘

읍지(1800), 공산지(1859) 등의 효자목에 “최식(崔湜)이 ”어머니 이씨가 병에 걸리자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자시(子時)에 손수 우물물을 길러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7년간 한결같이 하여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이에 동네사람들이 그 우물을 효자정(孝子井)이라고 하였다. “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현재는 마을 주민들도 ‘효자정’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니 아쉬울 뿐이다.

운궁리 뒷산의 심정승묘

운궁리 뒷산을 포함한 부근의 산야(山野)는 본래 청송 심씨의 사패지(輝牌之地)로서 한때는 9만석을 도조(賭租)로 받았기에 심구만(沈九萬)이라 불렀다 하는데 현재 산지 일대는 류씨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 가운데 매봉재의 산맥이 흘러와 결국이 된 곳에 마

을을 내려다보며 자리잡은 묘소 1기가 외롭게 남아 있는데, 인근에서는 ‘심정승묘’라 부르고 있다.

묘비 전면에는 “有名朝鮮國 贈議政府 領議政沈公諱宜隣之墓 贈貞敬夫人宣寧南氏附左”라고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는 심공의 일대기가 새겨져 있는데 한말(韓末)의 영상(領相) 심순택(沈舜澤)공이 지은 글이다. 1886년에 세워진 비문에 의하면 곧 심순택 정승의 부친인 심의린 공은 순조4년(1804)에 태어나 28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30세에 졸(卒)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심의린 공은 아들인 심순택 정승으로 인하여 후대에 추존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영의정에 증직되었기에 ‘심정승묘’로 불리게 된 것이다.

金 宗 瑞

1390(공양왕2)~1453(단종1)

조선 초기의 문신 · 장군

지력이 뛰어나고 강직하였기 때문에 대호(大虎)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도총제(都摠制) 추(鍾)의 아들이다.

육진개척

본관은 순천.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 상서원직장(直長), 행대감찰(行臺監察)을 거쳐, 1419년(세종 1)에 사간원우정언이 되었다. 이어 광주판관(廣州判官) · 봉상판관(奉常判官) · 의주사주도(義州朔州道)의 진제경차관(賑濟敬差官)을 지냈으며, 1426년 이조정랑, 1427년 사헌부집의 · 황해도경차관 등에 올랐다. 1433년(세종 15)에는 좌대언(左代言)으로서 이부지선(吏部之選)을 맡았다. 이 무렵 북쪽 변경에서 우디거[兀狄哈]족을 비롯한 여진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아, 조정에서는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북변 강화의 필요성을 강경하게 주장하여, 세종으로 하여금 북방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했다. 마침 1433년 우디거족과 오도리[斡朶里]족이 서로 다투는 등 여진족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국토 확장에 뜻을 두고 있던 조정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에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그는 같은 해 12월 함길도도관찰사, 1435년 함길도병마도절제사가 되어 7, 8년간 북쪽 변방에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비변책(備邊策)을 올리

는 등 6진(六鎭: 종성 · 회령 · 경원 · 경흥 · 온성 · 부령)을 개척하여 국토확장에 큰 공을 세웠다. 이로써 1416~43년에 걸쳐 개척된 압록강 방면의 사군(四郡: 여연군 · 자성군 · 무창군 · 우예군)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토가 두만강 · 압록강 상류까지 넓어졌다. 1440년 서울로 돌아와 형조판서 · 예조판서를 지내고, 그뒤 충청 · 전라 · 경상 3도의 도순찰사를 거쳐 1446년 의정부우찬성으로 임명되고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하였다. 1449년 8월에 달달(達達: Tatar) 야선(也先)이 침입하여 요동 지방이 소란해지자 평안도도절제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사서편찬

그는 6진을 개척한 용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려사 高麗史> ·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 · <세종실록>의 편찬작업을 책임지는 등 학자 · 관료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1451(문종 1)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편찬한 <고려사>는 본래 1392년(태조 1) 정도전(鄭道傳) 등이 편찬한 것을 세종 때 몇 차례(1421, 1424, 1442) 개수한 끝에 완성한 것이었다. <고려사>의 편찬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데다가, 정도전 등 몇몇 개인의 가문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김종서 묘 충청남도 기념물 제16호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소재



공정치 못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종서·정인지(鄭麟趾)·이선제(李先齊)·정창손(鄭昌孫) 등이 1449년부터 개찬에 착수하여, 1451년에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의 기전체(紀傳體)의 정사(正史)로 <고려사>가 완성되었다. 같은 해 10월 우의정으로 승진, 편년체(編年體) 고려사 편찬을 건의하여, 이듬해인 1452년(단종 즉위년) <고려사절요> 편찬에 참여했다. 같은 해 <세종실록> 편찬의 책임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계유정난(癸酉靖難: 세조의 왕위찬탈사건)으로 위의 사서들에서 그의 이름은 모두 삭제되었다.

계유정난

그는 세종 때부터 임금의 신임을 받는 관료로서 성장했다. 문종도 죽음을 앞두고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등과 함께 우의정인 그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다. 그러나 세종의 여러 왕자들이 다투어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야망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인물로 그를 지목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다. 수양대군은 한명회(韓明澮)·권람(權輿) 등의 모사(謀士)를 얻은 뒤 홍달손(洪達孫)·양정(楊汀)·유수(柳誅) 등 무사들을 규합, 1453년(단종 1) 10월 13일에 거사하기로 하고, 이날 우선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

으로 가서 양정·임운(林芸) 등이 김종서와 아들 승규(承珪)를 살해했다. 뒤이어 이들은 단종에게 김종서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기에 대역모반죄(大逆謀叛罪)로 우선 죽였다고 아뢰고, 왕명을 빌어 대신들을 소집한 다음 홍윤성(洪允成) 등을 시켜 황보인·조극관(趙克寬)·이양(李穰) 등을 죽였으며, 정분(鄭)·조수량(趙遂良) 등은 귀양 보내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 1680년(숙종 6) 강화유수 이손(李巽)이 김종서의 억울함을 논하였으며, 1719년(숙종 45)부터 후손들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하였다. 1746년(영조 22)에 그의 벼슬이 회복되었다. 종성의 행영사우(行營祠宇)에 제향되었다. <장백산에 기를 꽂고>·<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등의 시조가 전한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 김종서 장군 상소문 中에서 －

군사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떤이는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할 수 없다’ 하고, 무기를 수리해 놓으려 하면 ‘백성이 가난하니 할 수 없다’ 하고, 장정의 숫자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백성이 놀라서 시끄럽게 되니 할 수 없다’ 하고, 군대를 출동시키려하면 ‘국고가 비어 있으니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굶주리고 국고가 비었다고 해서 오랑캐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공주 '쌍둥이 금강교' 생긴다 2010년 완공, 환황해권시대 대비

교통체증해소, 산성시장 활성화 위해

시는 금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구 금강교의 일방통행으로 구 시가지를 통행하는 교량과 도로가 없어 교통이 혼잡할 뿐 아니라 산성시장의 경기침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중국과 인도의 성장과 환황해권시대의 전개로 보령, 청양, 공주, 행복도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공주시 신관동~금성동을 잇는 새 금강교를 구 금강교 옆에 나란히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건설될 쌍둥이 금강교는 2008년에 사업을 추진, 2010년 완공 예정으로 길이 550m, 넓이 24m이고 건설은 엑스트라 조도조교 형식으로 총사업비는 4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주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공주시는 올해 총 2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 방문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신청은 혼자 힘으로 가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식사, 세면, 체위,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돕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 중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다. 서비스 대상가구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3만6천원을 선납하면 매월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공주시 2007 수생식물식재 시범사업 선정

공주시는 정안면 고성리(풀꽃이랑마을)저수지 주변을 수생식물 식재 시범 사업단지(고성천 4km)로 지정해 올4월부터 11월말까지 7개월간 사업을 추진한다. 정안면 고성리(풀꽃이랑마을) 고성저수지는 상류의 고성천을 통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점 오염원(생황하구,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인으로부터의 미처리된 오염부하 유입으로 수질환경기준인 1급수에 크게 못 미치고, 고성천 및 고성저수지의 자연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생식물 식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천

공주시, 기업민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공주시는 지난 3월부터 공장설립절차를 일사천리로 한번에 해결해주는 기업민원 일회방문 원-스톱 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주시는 공장설립시 많은 법의 제약이 따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 팀(14업무 22명)을 구성 운영한다.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는 공장설립 민원처리를 위해 공문이 오고 가는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팀원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서명함으로써 부서협의를 생략하는 민원처리 절차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의할 필요가 없이 기업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처리 부서에서 민원 관련부서에 알리고 날짜를 정하여 원-스톱 처리팀의 회의를 소집, 한자리에 모여 현장 방문과 민원협의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주시 비행장치검사소 유치

공주시는 신풍면 산정리 851-1번지 소재 (주)동해기계항공 부지 내에 비행장치 지정검사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주를 항공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주에 비행장치검사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비행장치 검사·교육·시험에 대한 전문인력 200여명이 상주함으로써 연간 약 120억원의 경제효과와 연간 2만여명의 방문으로 연간 약 35억원의 비용이 공주로 유입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신풍비행장치 검사소는 활주로·격납고·교육장·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검사와 비행장치 자격시험, 비행장치 조종사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가슴 따뜻한 공주시청 민원실



공주시청 시민봉사과에서는 제35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8일 하루 동안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르신께 사랑을 가득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랑으로 얘기해요 ‘손가락 대화’

공주시 수화통역센터 개강식

공주시는 3월20일 수화통역센터(센터장 이호준)에서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화교실 기초과정인 수화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공주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수강생 20여명은 3개월간의 기초 교육과정을 통해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화를 매주 화·목요일(주 2회) 저녁에 2시간씩 공주시 새마을회관에서 배우게 된다.



금강둔치공원 종합공원 변모

4월 11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의시설 조성계획’ 연구보고 및 토론회에는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공주시의회의원, 연구팀장인 김학수(공주대생활체육지도학과)교수, 이일주(공주대유아교육과)교수, 황호영(공주대생활체육지도학과)교수, 생활체육회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 금강둔치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금강둔치공원은 금강과 공산성이 어우러진 공주시의 보물같은 공원”이라며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야외무대와 조명시설, 그늘막, 음수대 등의 확충을 건의했으며, 우천시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부분의 체육회 관계자들은 도·전국체육대회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풋살 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케미컬 코트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주시 금강 둔치공원이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공주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축제가 열린 금강둔치 풍경

日 왓소축제 위원단 공주 방문 최석원 위원장, “양 축제간 문화 교류 기대”



일본 오오사카 사천왕사 '왓소축제' 실행위원회(위원장 이누구마 가네가츠) 일행 30여명이 백제역사 문화 탐방 및 위원장 간 상호 축제교류를 위해 4월15일 공주를 방문했다. 일행은 4월13일 서울과 4월 14일에는 부여에 이어 이날 공주를 방문했다.

이날 백제문화재단사무실에서는 최석원 집행위원장의 환영인사 및 기념품전달이 있었으며 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백제 문화제와 왓소축제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이누구마 위원장을 비롯한 ‘백제의 회’의 하나무라 대표 일행은 국립공주 박물관과 무령왕릉을 둘러본 뒤 백제문화재 재단사무실을 방문, 최석원 (재)백제 문화재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준원 공주시장, 충남도청 서철모 문화관광국장, 유재룡 백제문화재 재단관리총괄팀장, 백제문화의 원류인 충청남도 아스카문화의 일본 관서지방과의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는 홍만표박사(지역정책학)의 환영을 받았다.

공주시장 · 부여군수, 日 관광객 유치 발벗고 나서다 백제문화제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이준원 공주시장과 김무환 부여군수는 3월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지역을 방문하여 일본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은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대한여행사 및 일본 굴지의 JTB여행사와 협력하여 일본 관광객모집을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 4월부터 1년 간 관광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양 시·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현지방문이다.

일본의 JTB여행사는 15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한화 1조2천원이 넘는 일본의 최대의 관광회사로 앞으로 1년 동안 일본 전 지역에 ‘백제 낭만호’라는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공주와 부여지역의 관광을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시장과 부여군수는 JTB여행사 간부직원과 동경지사에 있는 대한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등을 방문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지역이미지를 홍보하고, 올해 처음으로 양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를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위선양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가두 캠페인 벌여

경찰서 · 교육청 · 시민경찰 합동

공주경찰서(서장 유충호)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3월 12일~6월 11일(3개월)까지 운영한다.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 법률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주경찰서 황호연 생활질서계장을 선두로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청, 시민경찰이 합동으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산성재래시장과 중동 상점가

주차장, 진입로 포장,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

공주시는 3월9일 홈쇼핑 인터넷 구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와 백화점 및 대형할인 매장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했다. 공주시에서 지정한 시장 활성화 구역은 제세당교~중동사거리~박물관사거리~공주우체국 앞 구획(중동 2통)으로 지정면적은 27,158㎡(토지 24,158㎡와 도로 3,623㎡)이다.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현대화 사업인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포장, 아케이트 설치, 노후시설 개선, 홍보시설 설치사업이 지원되며 구조개선사업으로 공동작업장, 공동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설치 등이 지원되고 경영혁신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이벤트 행사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주시장기타기 생활체육대회 개막

- 4월21일 백제체육관에서 -



매년 공주시 주최로 열리는 공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제15회를 맞는 축구를 비롯하여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배구, 테니스, 궁도, 탁구, 족구, 생활체조, 야구, 인라인스케이팅, 패러글라이딩, 풋살 등 총 14개 종목이 진행된다.



이날 개회식에는 전선규 공주시부시장, 이동섭 시의원 및 시의원, 최희택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김종성 공주교육장, 14개 종목별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식전행사로 합기도연합회 김천용 사무장 외 20명의 합기도시범과 검도시범단의 시범이 있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치사에서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를 축하하고, 생활체육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심어주고 계층간·지역간 이해와 화합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임을 확인하며 동호인들이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대회가 되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였다.



4월21일 배구, 궁도, 탁구대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종목별로 개최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화합의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 초·중, 日 학생과 우정교류 日本 加唐 小·中학생 Home stay 실시



탄천 초·중학교(교장 김현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본 加唐市 소·중학생 홈스테이 방문에 따른 교류체험 학습을 실시하였다.

무령왕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일본 加堂市 소재 소·중학생과 탄천 초·중학생간의 홈스테이를 운영해 한·일 학생 상호간 우정의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홈스테이 행사는 일본 학생들이 24일 도착하여 탄천 초·중 자매결연 학생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며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둘째날에는 학교에서 우리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제기차기, 사물놀이 공연 등을 함께 하고 오후에는 도예촌에서 도자기 굽기 체험학습을 실시했으며, 마지막 날인 26일은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견학하여 백제문화의 근거지인 공주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목일 맞아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중부지방산림청, 4,400여 그루 무상 제공

3월 23일 오전 공주중학교 앞 노상주차장에서 중부지방산림청(산림청장 심영만)은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로 8번째의 행사로 꽃나무와 유실수, 조경수 등 약 4,400여 그루를 공주시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

4월 5일 충남통일관 개관식

지난 4월5일 공주시 용진동



권정달 총재는 치사를 통해 “우리는 남북 대화의 수용자세가 돼 있다”고 말해 통일을 위해 대화를 통해 달라진 남북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2000년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북한을 방문, 김정일 등 북한 실세와 함께 남북문제 대화를 한 경험이 있다”면서 “시대와 상대 위치가 변하는 시대에, 또 자유경제논리가 변하는 시대에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구 지사는 젊은이들의 통일관을 거론하면서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통일관이 전 국민의 공통된 인식의 통일관인 만큼 이번 충남 통일관 개관이 도, 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청소년들에게 남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5회 충남농아인 체육대회 개최

충남도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스포츠를 통한 재활의식 고취 및 우수 체육인을 육성하고 선발하는 제5회 충남농아인 체육대회가 4월27일(금) 10시~16시까지 백제체육관, 종합운동장, CJ당구장, 삼우볼링장에서 분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으로는 총 9종목에 정식종목 당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육상100m, 육상 200m, 육상 400m계주와 부대종목 만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리던지기, 2인3각, 오재미 넣기, 윷놀이 등이 펼쳐졌다.

경기방법은 기록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식, 리그전 방식으로 하되 참가규모 및 경기 특성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가 인원은 850여명으로 예상하며, 시상은 종합단체 1, 2, 3, 4등, 응원상, 개인 MVP로 구분하여 수여되었다.

농아인 체육대회는 건전한 사회참여 및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고 청각언어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간의 건전한 상호교류 및 장애인 복지향상과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와 충남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화재피해 주민들 도움 받을 수 있는 길 많아”

-공주소방서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저 소득자 및 조손가정의 화재피해자 당사자는 의료비로 최대 500만원 및 주거안정비로 200만원을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E-아름다운 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루아침에 화재로 인해 불의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은 각 지역 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각종 지원금 및 세제혜택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주소방서(서장 신해철)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각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프로그램이 많은데 대부분 화재피해 주민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방침이다.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17만원과 의료비 300만원을 한달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당사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었을때 손해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피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듣기만해도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남부복지관, 음악치료 공개 설명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에서는 4월 13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공개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음악치료는 멜로디, 하모니, 리듬이 갖추어진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일반적인 음악을 치료

적 도구로 사용하여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며 음악적 경험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서 장애인의 재활을 향상시키는 치료의 한 방법이다.

또한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역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의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개 설명회에서는 ‘음악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뿐 만 아니라 치료 진행내용을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 음악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의 장을 펼쳤다.

공주교대, WOU와의 협약 체결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강지형)는 지난 3월 14일 미국의 Western Oregon University(이하 WOU)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WOU는 1856년 오레곤 주에 설립된 첫 번째 주립대학이다.

이에 공주교대는 올 여름방학부터 WOU에서 학생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2+2제도(공주교대 2년·수학, WOU 2년·수학 후 학위 수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명품 백제문화제 위한 산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현판식 열려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고 백제문화제의 명품축제, 세계축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유상호 농협충남지역본부장은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달라며 1억원의 출연금을 기부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한편, 재단사무실 현판은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백제자기사 목간을 본뜬 것으로 충청남도 문화담당인 최운현씨가 백제 사택지적비의 서체로 글씨를 쓰고, 정지완 충남 서각협회장이 自費로 제작 기증했다.

강북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주시 강북도서관은 독서운동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 6월중순까지 2007년도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북도서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정서함양은 물론, 평생 독서습관과 연결되므로 책 읽기 유도과 독서흥미 유발을 위하여 유아(6-7세)를 대상으로 『생각쑥쑥 이야기교실』강좌를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책이랑어린이독서회』강좌를 개설하여, 올바른 독서지도 및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공주대 총장 공간 '孝 문화연구소'로 63평 규모 리모델링해 시민들에 개방



공주대학교 총장 공간을 리모델링해 효 문화연구소로 활용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공주대 김재현 총장이 취임후 총장 공간 활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다 일반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공주대 소속의 효문화연구소를 개편,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주대는 이에 따라 내부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총장 공간 사용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주대 총장 공간은 공주시 중학동에 부지 967.2m(295평)에 건물 연면적(63평) 규모로 2층 단독주택으로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89년에 건립되었다.

어르신들 위로를 위한 효도관광

공주시 모범운전자회는 4월 24일 모범택시 40대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노인 90명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개최하였다.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사)전국모범운전자회 공주시지회(회장 박노경)는 17년째 무의탁 독거노인을 초청, 효도관광을 펼치고 있다. 주요관광코스는 ▲장기면 장암리에 위치한 석장리박물관, ▲반포면 학동리 자연사박물관 ▲공주시 웅진동 소재 웅비탑 야외 광장에서 각설이 공연 등 흥겨운 경로위안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효도관광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수건을 증정 할 계획이며 생활에 활력을 드리기 위해 웅비탑 야외무대에서 각설이 공연관람을 하였다.

공주시 공무원 자비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 펼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24명, 환경정비와 목욕봉사 등

공주시 주민생활지원과(과장 오세우) 직원 24명은 지난4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에 위치한 자비노인복지센터(소장 박애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청사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인 분들께 목욕봉사를 하였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기저귀와 세제 등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노인들을 위로 했으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전 직원이 공직자자원봉사단에 가입하여 연탄 나르기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새마을가족, 사랑의 집 고치기 탄천면 기초생활대상자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가 3월 20일 공주시 탄천면 일대에서 실시됐다.

탄천면 새마을 가족들(회장 정운홍, 김수자)은 탄천면의 기초생활 대상자 3가정을 선정하여 방과 주방, 마루 장판을 바꾸고, 도배를 해주었으며, 이불과 베개를 구입하여 주었다.

새마을 가족들은 새 봄을 맞아 허술한 집을 새로이 단장하고 집안 대청소까지 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찬 봄을 느끼게 해 주었다.

공주대 교육학과 교원일동 발전기금 1,100만원 기탁

공주대학교는 3월 22일(목) 10시 대학 총장 접견실에서 본 대학 교육학과 교원일동은 공주대 김재현 총장에게 발전기금 1,100만원을 목적 기탁하였다. 목적 기탁한 발전기금은 교육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기선씨, 공주대에 도서 1,100여권 기증 공직생활 37년간 마감, 후배 사랑 위해



공주대학교(총장 김재현) 사범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선(金其璿, 51년생, 사진) 선생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 도서관에 후배사랑을 위하여 도서 1,100여권을 기증하여 훈훈한 감동과 화제가 되고 있다.

김기선 선생은 1969년 8월 공주사범대학에 부임한 이래 37년 동안 공주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은 물론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으로 올해 6월 말에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김 선생은 “공직생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학생들에게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참고서 관련 서적을 기증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공주대학교 도서관은 김 선생을 위하여 도서관예전당에 등록하고 감사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4회 계룡산 봄꽃 문화예술제

벚꽃 터널 이루어 장관 연출

제4회 계룡산 봄꽃 문화예술제가 4월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봄꽃예술제행사는 새봄과 함께 민족의 영산 계룡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벚꽃을 배경으로 축제 길놀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박정자 삼거리에서 동학사 도로변에 벚꽃이 만발한 벚꽃 터널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는 봄꽃 축제는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역사박물관 벚꽃 '滿開' ..상춘객 봄 만끽



특히 5월 2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지는 '2007 벚꽃과 함께하는 문화축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을 즐겁게 하였다.

공주시 중동에 위치한 충남역사박물관에서는 5월 8일 오후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공주풍물단의 사물놀이, 남은혜민요연구회의 경기민요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지난해 9월 충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문을 연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은 100년 이상 된 벚꽃이 만개해 상춘객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뮤지컬 그리스

한시도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공연



최고 히트 뮤지컬의 대명사 그리스가 4월 13일~14일(2일)간 공주문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뮤지컬 그리스는 1972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35년간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계의 베스트셀러다. 이러한 기록은 한국에서도 이어져서

2003년 한국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초연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흥행 돌풍을 이어온 최고 히트 뮤지컬의 대명이다.

짐 제이콥스가 대본을 쓰고 워렌 캐시가 작곡을 담당한 뮤지컬 “그리스”는 1972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80년까지 3천3백88회를 기록하면서 전세계에 알려졌다.

“그리스”는 영화 개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이후 1994년부터 1998년 1월까지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리바이벌 공연을 가졌다. 이는 리바이벌 공연으로는 최장기 공연 기록으로 남아있다.



백제 문양 디자인으로 피어나다

백제문화역사관 특별전 개최

1500년전 백제의 유물 속에 감춰진 문양이 산업화를 위한 문화콘텐츠로 거듭난다. 충남도역사문화원과 백제문화역사관은 4월 30일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백제역사문화관에서 백제문양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명품, 백제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0월말까지 열리는 백제문양특별전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의 용문양과 동탁은잔에 새겨진 인동당초 등 백제문양의 원형을 만날 수 있다. 또 무령왕릉 내 전돌에 새겨진 연화문과 각종 동물문양도 볼 수 있다.

또 이들 문물에 새겨진 문양의 원형과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원형을 응용한 문양을 새긴 생활제품 200여점도 전시된다. 넥타이와 스카프 등 패션·주방용품, 침구류, 열쇠고리 등 각종 기념품도 만나볼 수 있다.

백제역사문화관 이순근 관장은 “백제문양에서 현대적 가치를 발견해 산업화와 브랜드화를 유도하기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지역문화 및 디자인산업에 접목하면 ‘메이드 인 백제’ 상품으로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0회 계룡산 산신제 개최

‘봄맞이 연인음악회’



제10회 계룡산 산신제가 5월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신원사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공주시 계룡산 산신제 보존회(회장 구중회, 공주대 교수)에서 주최하고 계룡산 산신제 실행위원회(위원장 정재욱, 공주문화원장)에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1998년 시작 이래 10주년이 되

는 뜻 깊은 행사로 유·불·무가식 산신제와 다양한 공연행사를 펼쳐졌다.

계룡산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 왔으며 신라 때는 5악의 하나로 제사를 지냈고 조선시대에는 북쪽의 묘향산을 상악으로, 남쪽의 지리산을 하악으로, 중앙의 계룡산을 중악으로 하여 단을 모시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또한 현재는 국행제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유·불·무의 종합산신제 성격으로서 다양한 종교의 조화로운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 선사시대로 한번 돌아가볼까?

공주석장리 박물관 어린이 선사 체험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에서는 4월 28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비로운 선사시대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체험내용은 석장리 박물관 야외 잔디밭에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선사어린이 기념촬영, 선사문양 목걸이 만들기, 선사시대 곡식 껍질 까보기 체험 등이며,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함께 아코디언 연주도 할 수 있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관계자는 “아득히 먼 옛날, 선사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삶의 옛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상설 체험행사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제4회 계룡산 분청사기 축제

계룡산의 자랑, 철화분청사기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도예촌 일원에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선인 철화분청사기장 추모제를 시작으로 ‘계룡산분청사기축제’가 펼쳐졌다.

올해로 4회째 맞는 분청사기 축제는 강진의 청자, 이천의 백자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도자기인 철화분청사기로 공주 계룡산이 주산지로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주만의 자랑을 전국에 알리는 축제이다.

또한 ‘공주 국제 도자문화 교류’를 주제로 5개국에서 외국작가 5명 및 국내작가 9명이 참여하여 도자 세계를 소개하는 도자기 기법시연 및 워크숍 등이 진행되며 주요 행사는 △선인 철화분청사기장 추모제 △도예촌 작가 테마전 △참여작가 워크숍 △시의 테마전 △도예체험마당 △도자기판매마당 △시골먹거리 장터마당 △장작가마시연을 비롯해 도예촌 행사장 중앙무대에서는 음악 공연, 시낭송, 사물놀이가 펼쳐 졌다.



시간이 멈춘 종묘 사진전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신창수)은 이전개관 3주년을 기념하여 “시간이 멈춘 종묘” 사진전을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에게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전시는 종묘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75점의 사진을 선별하여 크게 3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먼저 “시간이 멈춘 종묘”에서는 종묘의 옛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하늘과 맞닿은 종묘”에서는 사계절의 모습을 담은 종묘의 아름다움을, “종묘와 사람들”은 종묘를 찾은 현대인의 다양한 모습을 12점의 사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으로 사적 1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종묘는 뛰어난 건축적 가치와 6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제례행사 등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01년에는 종묘제례 및 제례악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되었다.





고마나루 축제

공주의 대표적인 축제



올해로 12 회째를 맞고 있는 고마나루 축제는 매년 7~8월에 금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가운데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시민의 놀이마당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올해 또한 화려한 축제 개막이 준비되고 있다.

곰과 인간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 공연예술 축제로, 해마다 7~8월에 개최되며 국악, 연극, 관현악, 사물놀이, 시민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지는 여름밤 축제이다.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충남교향악단을 비롯하여 공주의 자랑인 연정 국악원의 국악 한마당, 우리지역 음악인들로 구성된 윈드앙상블 등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져 한여름 밤 더위에 지친 시민들께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 기 간 : 2008년. 7월 ~ 8월

- 장 소 :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 특설무대



유교 현인들 德 기린다

정해년 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정해년 춘기향교석전대제가 지난 3월24일 교동 향교 대성전에서 거행됐다. 이날 석전대제는 공주 유림과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에는 유재민 향교전교, 아헌관에 정재욱 문화원장, 종헌관에 정정희 씨가 각각 봉행했다.



마곡사 신록축제

신록과 봄꽃은 환상의 콤비!



예로부터 '봄 마곡 秋 갑사'라고 불리는 천년고찰 마곡사에서 아름다운 신록과 심산유곡의 봄꽃이 어우러진 제4회 마곡사 신록축제가 개최됐다.

4월 21일~22일 2일간 마곡사 입구 주차장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축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진각스님)가 불교형식의 문화를 가미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무대공연과 체험거리로 진행, 참석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내용은 4월21일 오후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네팔왕립무용단 초청공연, 태화산 산신제, 영산재, 불화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공연행사와 사경대회, 포행(명상수행), 부처님 그리기, 연등 만들어 소원달기, 사찰다도 강연, 연꽃사진전, 숯대만들기 및 장승제, 템플스테이 등 체험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제공했다.



‘8회 웅진성 수문병교대식’ 개막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공주시 공산성 금서루에서 ‘제8회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개막행사가 열렸다.

문화관광부 지정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이기도한 수문병 교대식 개막행사에는 200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해동검도 시범과 충남연정국악원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백제왕실 호위병사로 선발된 20여명의 대학생들은 이날 창을 들고 출정식 및 철병식, 교대식 등을 재현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6일까지 7,8월을 제외하고 5개월 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에 열리게 되며 백제복식체험, 활쏘기, 무예체험, 투호 등 각종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 상영

2007년 4월 26, 27일 양일간 공주문화원 강당에서는 일일 3회(11시, 1시, 3시) 천년여우 여우비를 상영하였다.

줄/거/리

운명을 거스른 여우소녀의 아름다운 모험이 시작된다!!

“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네 영혼을 훔치려던 건 아니었어...”



산 속에 홀로 살고 있던 여우비(손예진)는 어느 날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요요'들과 우연히 한 집에 살게 된다. 평온한 나날을 보낸지 100년, 인간의 나이로 10살이 된 여우비는 조금씩 모르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한편, 외계인 '요요'들은 자신들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재조립한 우주선의 첫 시험 비행을 하게 되지만, '말썰요'의 엉뚱한 실수로 우주선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썰요'는 가출해버린다. '말썰요'가 마을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여우비와 요요들은 급히 '말썰요요' 수색에 나서게 된다.

처음으로 인간들을 접해본 여우비는 낯설음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면서 막연히 인간의 삶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다. 그러던 중 여우비 앞에 인간이 되는 길을 돕겠다며 나타난 '그림자 탐정'

은 계속해서 여우비의 주위를 맴돌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인간 소년이 영혼들의 세계인 '카나바'에 빠지게 된다.

소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여우비는 '카나바' 속으로의 뛰어들고, 그 곳에서 만난 영혼들의 수호자 '삼바바'는 그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선 또 다른 영혼이 필요하다는데...



이형복 사진전 및 사진책자 출판기념회



고 이형복 사진전이 2007년 4월 28일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사진 책출판회 및 사진전을 열었다.

고 이형복 선생은 공주사대 영어과, 고려대학원 졸업, 공주고등학교 교사 한국식물사진협회 회원으로 평생을 모아둔 사진을 그의 아내인 남선우 여사께서 책자로 출판하였다.

공주문화원 보수공사

공주문화원에서는 07년도 신년 및 상반기 바쁜 행사를 앞당겨 마친후 앞으로 공주시민들이게 더욱더 편한하고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물내 방염공사 및 3층 향토문화 박물관 개벽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인 3~4월간 문화원에서는 예인촌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행사를 미처 매끄러운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공주시민께 고개숙여 죄송한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공주문화원은 시민들에게 문화의 안락처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하는 공주시사람들 “예인촌” 서른여덟 번째 정기공연

의당면민 노인위안공연

공주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예술하는 공주시사람들(예인촌) 및 의당학구단위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의당면사무소와 의당면 노인회가 후원하는 의당 학구단위 노인경로잔치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2007년 5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의당면 의량초등학교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이창휘 의당면장을 비롯한 각급기관장 및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공주시 사회복지관 밝은실버풍물단의 길놀이, 공주대학교 최선무용단 장은정 학생의 태평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댄스스포츠팀의 씬바공연, 의당면 실버동아리 논두렁 발두령의 축원덕담, 공주대 최선무용단 김진희외 5명의 학생의 소고춤, 의당면 부면장 및 예인촌 회장을 맞고 있는 이결재 회장의 우리소리, 논두렁 발두령의 풍물놀이 및 면민 경로만찬잔치로 마무리 되었다.

햇빛이 따듯한 학교운동장에서 시작된 이번공연은 이결재 씨의 ‘아리랑’인 우리소리 및 논두렁 발두령의 풍물이 시작되자 모두들 어울려져 덩실덩실 함께 춤을추는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루어진 예인촌의 공연으로 다음 공연으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떨어져 쓸쓸히 병마와 싸우는 국립공주병원을 5월 18일 최선무용단이 방문하여 공연할 계획이다.



공주문화원 실버문화학교 「논두렁 발두령」의 전통소리 공연 모습

한미당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2007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공연일정

서른여덟번째 공연

5월 7일 어버이날 의당면민노인 위안 공연
장소 : 공주시 의당면 의량초등학교



가정의 달 특별 공연

5월 18일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병마와 싸우는 공주국립병원 위안 공연
장소 : 공주 오곡동소재 공주국립병원



서른아홉번째 공연

6월 피아니스티 강나영과 함께하는
〈열린콘서트〉 '피아노와 장구이야기'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마흔번째 공연

9월 이결재의 공주의 소리마당
장소 : 미정



마흔한번째 공연

10월 이광형의 가곡의밤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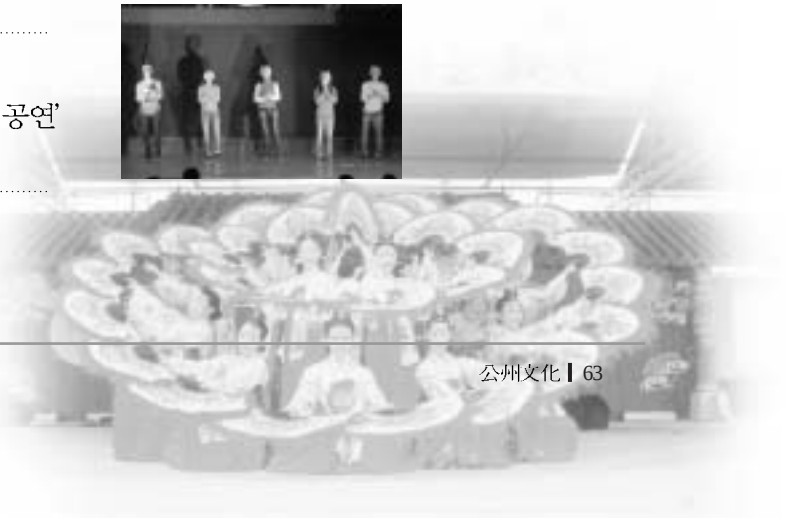
마흔두번째 공연

11월 최선무용단의 찾아가는 순회공연
장소 : 공주의료원, 연기군내등



마흔세번째 공연

12월 청소년 기획공연 '논두렁 밭두렁공연'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근작시 감상

장미 꽃 봉우리

심 우 택



장미여!

탐스러운 너의 얼굴 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봉우리여!

너의 곁에 있는 내가

사랑을 길러 이제는 마지막

물음의 한송이 꽃이라니

하늘이 조각날듯 슬푸구나

눈물로 돌아가니 편안히 잠드시우라

시인 심우택(80세) : 공주시 교동에서 남은 여생을 오로지 시와 문학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공주의 문학인이다.